

제 164 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관전기 (貫戰期) 일본의 라디오 방송과 국민 만들기

강연자: 정지희 (鄭知喜) (동경대 정보학환 특별연구원)

동경대 정보학환의 정지희 특별연구원의 세미나가 11월 5일 국제대학원 GL룸에서 열렸다. 본 세미나는 '관전기 (貫戰期) 일본의 라디오 방송과 국민 만들기' 라는 주제의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2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정지희 연구원의 미군정에 의한 민주화 과정에 관심을 갖고, 민주화가 어떻게 일반적인 것이 되었는가 혹은 일반적인 것이 되지 않았는가에 주목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고 운을 떼면서 미군정이 일본의 재교육 프로그램의 수단으로 라디오에 집중하였다고 설명했다. 관전기라는 개념은 길게는 1차 세계대전부터 60년대, 짧게는 30년대부터 50년대까지의 시기를 통칭하며, 앤드류 고든이 자신의 논문에서 사용해서 대중화한 개념이다. 일본 라디오의 역사는 1925년에 처음 민간자본을 바탕으로 한 동경방송의 라디오로 시작되었고, 이듬해 일본방송협회(현 NHK)로 통합되었다. 관전기에는 정치와 일상을 이야기하는 미디어로서 라디오가 주목을 받았다.

대중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국민이 되는가에 대한 물음에 아리야마 데루오는 모스의 '대중의 국민화'라는 개념과 베네딕트 앤더슨의 '상상의 공동체'를 개념을 혼합하였다. 일본에서의 대중의 국민화는 메이지 말기에서 쇼와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근대 미디어의 역할이 컸다. 라디오는 당시 이용 가능한 가장 선진적인 매체로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수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정치의 대중화를 가져왔다. 전자대중매체로서의 라디오는 동시성의 구현을 통하여 국민통합을 이루어냈으며, 음성매체로서 라디오는 저교육층에 대한 손쉬운 교화의 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수동적인 청중 혹은 맹목적 추종자를 만들어낸다는 비판을 가져오기도 했다.

그러나 정지희 연구원은 라디오 청취가 단순한 수동적 행위였다는 평가에 이의를 표하며 라디오를 듣는 행위 자체는 여러 노력을 통해 익혀야 되는 하나의 습관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청취자 방송참여의 역사에도 주목하였는데, 미군정에 의한 민주화 프로그램 이전에 청취자의 라디오 방송참여가 이루어졌었다. 일본 라디오 청취자에 관한 보편적인 이미지는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천황의 종전 메시지를 듣는 모습에서와 같이 순종적이며 수동적이었다. 그러나 청취자의 의식이 없이는 이러한 행동도 나올 수가 없다. 자발적으로 그 시간에 전원을 켜고 잡음을 조절하여, 방송 이해를 해가면서, 개인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패전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모습은 자동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20년간의 훈련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미군정 역시 일본 청취자의 이러한 이미지를 반겼다는 사실이다. 미군의 고위관계자는 사람들을 침략 전쟁으로 오도했던 일본의 라디오가 오늘날 민주적이고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를 건설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라디오의 효력을 장려해야 할 필요를 인지하였다.

라디오를 경건하게 듣는 일본 청취자의 이미지는 미군정이 바라는 바람직한 국민상이었으나, 사실은 방송에 훈련되어 있지 않은 천황의 목소리에, 일상적이지 않은 단어들로 이루어진 천황의 연설을 이해하지 못하는 청취자가 많았다. 달리 말해, 모든 청취자가 이런 이상적인 청취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정지희 연구원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메시지라는 탄환을 청중에 즉각적이고 획일적으로 주입한다는 탄환이론이 사실, 발신자의 메시지를 청취자가 의도대로 듣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방송관계자들이 일일이 청취자를 강제로 방송을 듣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개개인이 라디오를 시간에 맞추어 라디오 전원을 켜고,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채 메시지에 집중하여 그것을 따르게 하는 것이 일본 방송관계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한 명이라도 많은 사람이 방송에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고, 듣든 안 듣든 방송제작자 측이 생각하는 대로 대중이 자연스레 따라온다는 독선적인 자세는 오히려 대중을 유리시켰다.

‘올바른’청취태도와 습관을 가진 청취자를 창출하기 위해 일본방송협회를 중심으로 방송감독 관청, 각 부현 사회교육 담당자들이 청취자의 라디오 수신 행위에 개입하여 그 변화를 꾀하는 청취 지도를 하였다.

또한 능동적 청취자 만들어 전시에 동원하기 위하여 전시기에 단체 청취를 실험하였는데, 이는 생활 조건을 공유하는 청취자로 하여금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방송을 지도자의 지도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단체로 청취하도록 조직한 방송교육운동이었다. 단체청취의 3단계는 라디오교본을 미리 숙지하여 라디오 방송 전 개요를 배포하거나 어려운 단어에는 가나를 달아주는 등의 예비 학습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메모하면서 듣는 집중청취, 그리고 청취 후 다른 청취자들과 토론을 하면서 복습하는 단계로 이루어졌다. 정지희 연구원은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을 훈련화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단체청취는 교육상 ‘단체훈련의 실천적인 수련장이자 타인의 존재를 존중하는 훈련으로 청년들간에 자연스럽게 자제, 협력, 봉사, 희생적인 정신이 길러지게 된다는 사상이 보편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미군정 하에서도 라디오 단체청취를 실시하였는데, 1947년부터 정보제공용, 교육용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청취단체를 전국적으로 조직하도록 하는 계획안 완성하였다. 이들은 라디오가 그저 듣기 위한 도구라는 개념은 재고해야 한다면서, 라디오에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단체청취를 위하여 라디오모임을 갖도록 하였다. 지방 엘리트들을 이용해서 방송청취를 지도하라고 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국민’만들기에 주력하였다. 전시동원시기와 미군정 시기 모두, 단체청취운동이 위로부터 지도되었다는 점과 대중을 교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 질의응답

질문: 관전기라는 개념은 전쟁과 전쟁 사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연속성은 무엇이고, 단절된 것은 무엇인가?

질문: 관전기라는 개념에 대해 보충설명을 부탁 드린다. 국민 만들기라는 큰 틀이 전제된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미군정이 만들어내는 국민 모습과, 전시동원체제에서 만들어내는 국민의 모습이 같을 수 없을 텐데 어떤 점에서 같은지 혹은 다른지 또한 어떻게 다르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 드린다.

답변: 전반기는 그 전쟁 사이인데, 관전기는 30~50년대 전부 총괄할 수 있는 시기이다. 앤드류 고든은 관전기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을 때, 소비성과 근대성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중시했었다. 여기서 근대화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화된 개념으로, 그전까지는 소비 문화 등을 배척해 왔었다. 전후의 시민이라는 개념도,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전시기에 있었던 국가 권력으로서의 해방된 것이고, 전후가 지향하는 개념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개념은 사라지지 않았고, 미

군정 역시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개념을 중요시하였다. 전후 시민은 완벽하게 해방된 시민이 아니라, 국민국가로서의 시민이라는 점을 항상 의식화하여 왔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또한 연속성을 무시할 수 없다. 어떻게 연결된 상태에서 변화되어 갔는지에 집중하였다. 물론 천황시대의 국민과, 미군정에서의 시민은 똑같을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청취자의 라디오 방송참여 라는 측에서 보면, 미군정에서 처음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마이크를 들고 나가 보통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전후의 미군정은 이전시기와 달리 마이크를 해방했다는 담론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사실 전시기에도 방송참여 프로그램들은 많이 존재했다. 일본의 전국노래자랑과 같은 프로그램은 1946년부터 방송되었다. 그러나 그 전에도 노래자랑 같은 프로그램이 많았다. 다만 차이점은 전쟁 중에는 가능하면 개인의 경쟁은 지양하면서, 가창단체나 연주단체로 참가하여 단체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형식으로 나와 경쟁하였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협동정신을 함양하였다는 의미로 상을 주었다. 그러나 전후가 되면서 개개인이 나와서 경쟁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미군정에 의해 장려가 되었다.

질문: 1920년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라디오가 아니라 잡지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라디오가 갖는 장점은 글자를 자신이 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답변: 동의한다. 1925년대 라디오의 보급률은 1%밖에 되지 않았다. 1920년대 라디오는 정치와 일상을 이어주는 매체로 대두된 것이며 수신기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당시 라디오는 부르주아의 완구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 크게 보급되었다. 대중잡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한가지 역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라디오가 가지는 전자매체의 특성이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미디어는 라디오가 처음이었으며, 잡지와 달리 라디오는 음악과 함께, 청취자가 동시에 같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